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받았으면...

글 _ 김 현 진 · 감염인



아프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고통을 미뤄 짐작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차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피해 당사자가 아닐 경우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다. 감염인·환자들에게는 병원 또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장소라고 한다. 병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차별 환경들을 지난 호에 이어 연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내에게는 환자를 살리고자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력이 없는 의원도 필요 없으며 실력은 있으나 환자를 살릴 마음이 없는 의원 또한 필요하지 않다.

-모 드라마 대사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런 경우 대부분 담당과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입원을 한다든지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위급한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은 후 바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감염인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감염인의 경우 아무리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실에 도착하려도 어떠한 조치를 받기도 어렵고 입원조차도 힘들 때가 많다.

더욱이 다른 과의 진료를 필요로 할 경우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진료시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시기를 놓쳐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염인의 경우 다급히 진행되는 기회감염이 많아 병명을 밝혀내기 쉽지가 않으므로 많은 전문의가 필요한 것도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감염 내과는 늘어나나 의료 질은 기대에 못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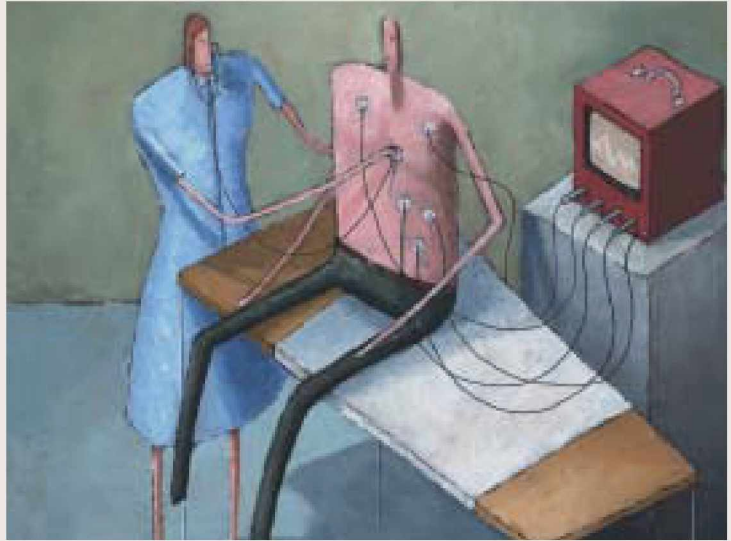
일례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째, 강북구 모 감염인의 경우 갑자기 눈에 통증이 있어 평소 자신이 진료를 받던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감염내과에 예약만 해놓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다음날 진료까지 점점 심해지는 눈의 통증이었고 막상 진료 당일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다.

또한 감염내과에서의 진료 후 타과 협진 의뢰서를 발부받아 타과에 다시 예약을 한 후 막상 정확한 검사를 받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경과된 후였다. 다행히 검사 후 치료를 받아 지금은 실명의 위기는 넘긴 상태이지만 만약 조금만 빠른 절차와 조치를 취했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불안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둘째, 요즘 들어 늘어나는 감염인들 때문인지 각 병원마다 감염내과들이 신설 또는 확장되는 추세이다. 물론 감염인들을 치료

감염인의 경우 아무리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실에 도착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기도 어렵고 입원조차도 힘들 때가 많다. 더욱이 다른과의 진료를 필요로 할 경우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진료시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시기를 놓쳐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염인의 경우 다급히 진행되는 기회감염이 많아 병명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는 것이야 좋은 현상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염인들에 대한 많은 임상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의료진일 것이다.

2005년 2월 처음 양성관정을 받은 한 감염인은 아직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요즘 들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며 RNA수치가 22만을 웃도는 상황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치료제를 복용해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 기회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켜보라며 검사만을 종용하는 담당 주치의의 결론은 치료시기를 놓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본인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치료제 투약을 결정하면서 면역수치와 바이러스의 관계는 항상 감염인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치료제를 투약하는 기준은 면역수치 250 이하이거나 바이러스의 수치는 55,000개가 아닌가? 그런데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지지 않는

때문에 환자나 주치이나 모두 고심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감염인들의 고통은 면역수치만으로 결정된 투약시기로 치료의 적절한시기를 놓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치료 시기 놓쳐 병을 악화 시키기도

또한, 급박하게 진행되는 환자의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담당 전문가 학회나 의사회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고 대진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전문의로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처방 또한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의 원인에 따라 치료제를 처방하겠지만 최소한 환자의 고통은 줄여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급한 용무가 있거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환자가 문이나 치료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증세를 호소하면 간단히 증세만을 전달받고(전화통화) 좀 더 현상태가 진행이 되면 치료를 하자는 방법으로 유도하여 CMV(거대세포바이러스)가 악화되어 실명을 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환자 본인이 기회 감염의 징후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우선 병원을 찾는 것이 순서일 테지만 환자는 먼저 확인해 보고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사례를 지켜본 본인은 최소한 절차상의 이유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과 환자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진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